

“침수대책 미흡…또 물난리” 분통

수해상습지 보성 검백면 도암마을 가보니

10가구 피해…안방까지 잠겨 “예방공사 좀 서둘렀다면…” “보성강 득높이기 탓” 지적도

태풍 ‘나크리’가 사흘 동안 377.5mm의 폭풍탄을 쏟아부으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보성군 검백면 주민들은 당국의 미흡한 침수 대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 물난리를 겪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3일 찾은 보성군 검백면 도암마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사흘 간 내린 비로, 주택 10개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마을 골목에는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냉장고, 매트리스, 가재도구 등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아직 물기가 흥건한 방 바닥을 닦아내는 주민 20여명의 얼굴에는 절은 그늘이 졌다.

해당 지역은 매년 침수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전남도와 보성군은 ‘수해 상습지’로 지정하고 지난 2011년부터 울

해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138억원을 들여 인근 보성강 제방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등 침수 피해 개선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물난리를 겪은 주민들은 침수를 막겠다며 추진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탓에 “재해 예방 공사라면 조금 더 서둘렀으면 피해가 없었을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순식(81)씨는 “아들이 수년 전부터 이사 가자고 했는데, 150년 전부터 살아 온 집이라 참고 살았는데…”라며 말끝을 잊지 못했다.

정씨의 집보다 1.5m 가량 저지대에 있는 정진래(84)씨는 간 밤에 1.5m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피해 황급히 대피했었다. 대문 앞에 쌓여둔 40kg짜리 소금 20가마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정씨는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긴 했어도 이번처럼 집 안방까지 물이 찬 적은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자치단체 등이

마을 일대를 ‘수해상습지’로 지정하고도 정작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데다, 인근 저수지 수문을 개방하는 등 배수 대책도 소홀히 해 화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가 매년 끊이지 않는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에서 20∼30m 떨어진 지역에 추진해온 보성강 1723m 구간(검백면 도암리∼남양리, 보성을 대야리)에 대한 득 높이기(7m→9.5m)와 폭 넓히기(90m→120m) 공사가 오히려 침수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마을을 지나는 하천이 보성강과 합류하는데, 보성강 인근에 추진 중인 저수지 득 높이기 공사가 미완료돼 배수펌프 설치가 늦어져 하천이 역류, 침수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정병진(58) 도암마을 이장은 “현재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며 “독이 높아진 뒤 침수피해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가 광주·전남지역을 휩쓸고 간 3일 보성군 검백면 도암마을에 사는 정순식(81)씨의 집에서 아들(53)이 가재도구 등을 마당으로 빼낸 뒤 집안방에 가득 찬 흙탕물을 제거하고 있다.

‘나크리’ 강풍에 우수수…추석 앞둔 배 농가 허탈

보성 벌교 11ha 낙과 피해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가 휩쓸고 간 3일 오전 10시40분께 보성군 벌교읍 월정마을에서 배농사를 짓는 양승우(72)씨의 과수원(1만6528.9㎡·5000평) 바닥엔 마치 흰 눈이 내린 듯 하얀 착색봉지에 든 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추석(9월 8일)을 앞두고 높이 2.3m의 배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할 배가 중심 부근 최대 풍속 22.0m/s의 위력을 견디다 못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양씨가 우선으로 나무를 건들자 한나무당 120∼150개의 열매가 열린 배나무에서 20개의 열매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양씨는 이번 태풍으로 60% 가량의 낙과(落果) 피해를 입으면서 결실의 기쁨은 커녕 버터미에 안개 될 처지에 놓였다.

양씨의 과수원에서 한해 수확량은 15kg 기준 3000상자. 배 한상자당 평균 가격이 4만5000원(지난해 상품 기준 6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는 대략 1억3500만원.

하지만 60% 이상의 열매가 떨어지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400만 원. 인건비·비료·착색봉지 구입비 등을 빼고 나면 오히려 적자라는 것이다. 양씨는 올해 자연 재해에 대비, 370만 원을 들여 농작물재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피해금액의 80%만 보상받게 돼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이 아니다.

양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보형금이 부담스러워 미가입한 농가도 많다는 게 양씨의 설명이다. 월정마을 40가구 중 배 농가는 모두 10가구. 과수원 면적은 37.5ha다. 이중 낙과 피해면적은 11.25ha다.

배농사를 짓는 최영래(52)씨는 “열매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면 병해충이 생긴다. 치우려면 7∼8명이 동원돼 사나흘 간 치워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당도가 높으면 인건비라도 건지려고 배출 공장에 연락해 수거해 가도록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작년말부터 후임병 치약 먹이고 물고문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본 28사단 가혹행위 실태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지난 4월 숨진 윤모(21) 일병이 속한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예하 포병대대 의무반에선 작년 말부터 전입 신병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 등이 자행된 것으로 군(軍)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말부터 4개월 정도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마저 전입 신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이 작성한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포병대대 의무반의 이모(26) 병장과 하모(23)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 4명은 상해지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의무반의 의무지원관인 유모(23) 하사도 윤 일병에 대한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의 결심공판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다.

수사결과 이 부대 선임병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입 신병을 대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전입해 오기 전 ‘막내’였던 이모(21) 일병에 대해 큰 소리를 쏘 내는 이유로 입에 치약을 짜 놓고 삼키게 하는

■윤일병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자대 배치한 첫날부터 매일 폭행·가혹행위 시달려 수액 주사 놓고 다시 폭행도 감독해야할 간부마저 폭행

방법으로 치약 1통을 다 먹도록 했다. 작년 9월 입대한 이 일병은 그해 12월 이 부대에 배치됐다. 비슷한 시기 이 병장은 이 일병의 목소리가 작고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침상에 누워 입을 벌리게 한 뒤 1.5ℓ 페트병에 담긴 물을 들이붓는 ‘물고문’ 형태의 가혹행위도 했다.

하 병장도 올해 1월 이 일병이 동문서답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일병의 뺨을 5회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올해 3월 3일 전입해온 윤 일병은 자대 배치 첫날부터 거의 매일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고참임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11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

이 병장은 생활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윤 일병에게 활아먹도록 하거나 음식

을 먹는 윤 일병의 얼굴을 때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떨어진 음식물을 활아 먹도록 하는 가혹행위도 자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

병사 간에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간부마저 윤 일병을 폭행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4월 6일 집단폭행 직전에는 이 병장이 가혹행위 이후 윤 일병에게 수액(링거) 주사를 놓아준 사실도 확인됐다.

수액 주사를 놓아주자 나서 당일 오후 4시7분께 의무반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윤 일병이 음식을 찹찹거리고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병장 등 선임병 4명이 폭행을 가했고 오후 4시33분께 윤 일병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오줌을 싸고 쓰러지려는 것을 보고 괴변을 부린다며 발로 윤 일병을 폭행했고, 이 상병은 윤 일병의 정신이 오락가락해 물을 먹이려고 했으나 윤 일병이 먹지 못하자 머리를 3회 때렸다. 오후 4시40분께 윤 일병의 심장이 멈추자 선임병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윤 일병은 다음날인 4월 7일 오후 4시20분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체육 꿈나무 목숨 앓아간 무리한 체중 감량

땀복 입은 채 반신욕하다가

무안서 여중 유도선수 숨져

“땀복 입고 사우나 하는 건 기본이고, 하루종일 짐을 뺀 선수, 설사약 먹어야며 몸의 수분을 쥐어짜는 선수, 손가락을 입에 넣고 구토하는 선수도 있어요.”

유도·레슬링·역도 등 체급경기 선수들의 체중감량 고육책이다.

최근 전남의 한 여중생 유도선수가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 체급경기 선수들의 관리실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무안의 한 중학교 사위실에서 이 학교 2학년 여자유도부 A(15)양이 반신욕을 하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다.

A양은 4일부터 영관에서 열리는 전국 남아 청소년 유도연맹전 48kg급에 출전하려고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체중을 5kg가량 남긴 A양은 오는 7일 자신의 체급 경기를 앞두고 오전 6시부터 1시간가량 실내 훈련을 한 뒤 곧바로 땀복을 입은 채 반신욕을 했다.

검안 결과, 사인은 과과열혈증에 따른 심장정지로 밝혀졌다. 과과열혈증은 음식 섭취량이 적은 상황에서 심한 운동을 할 경우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체중 감량은 유도·레슬링·복싱·역도·

체중 감량 실태 보니

설사약 먹고 수분 쥐어짜기

손가락 넣고 구토하기도

：

체급 선수 관리 점검 시급

태권도·체조 등 체급경기 선수들에게 가 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선수들은 통상 경기 당일 오전 또는 전날 실시하는 체제량 통과를 위해 경기 열흘 전을 전후해 식사량을 줄이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시작한다. 체중 감량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더 위험하다. 하지만,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고통 짙은 불가피하게 견뎌야 한다며 묵인하고 있는 게 체육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A양도 시험 1주일을 앞두고 사고를 당

방 더럽다며 말다툼 끝 주인 폭행한 손님…모텔 대신 경찰서행

○…모텔 방 청소가 안 됐다면 주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모모(33)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지평동 A모텔에서 주인 김모(35)씨와 “숙박용으로 받은 방이 더럽다”는 이유

로 말다툼을 벌이다 먹살을 잡고 혼들었다는 것.

○…피해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청소가 완벽히 끝난 상태였는데 손님이 술을 마시고 괜한 트집을 잡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15729	6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543 254㎡ 고흥군 도양읍 매동길 9-19 18평 제치외 창고 등 55.6㎡	대 단독주택	13,197,000 13,197,00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포함매각, 201 4타경 10127 [중복]
[연합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717	1	광양시 복포사항길 96, 11동 2층 201호 [금호동, 장미연빌주택] 75.25㎡	다세대	107,000,000 107,000,000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15729 2014타경 10127 [중복]	1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4 2102㎡	전	13,663,000 13,663,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40-4 615㎡	전	4,428,000 4,4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동소 93 1082㎡ [제치외매각외건물존재]	전	9,305,200 9,305,200	농지취득자격증명
	4	동소 513-7 2074㎡	답	33,306,000 2,863,800	일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5	동소 513-8 2196㎡	답	33,306,000 2,863,800	농지취득자격증명
		동소 551 387㎡ [일부타인소유매각외건물존재]	전	2,863,800 2,863,8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16968		고흥군 통양면 아라리 10 261㎡ 동소 11 1782㎡ [물건번호1:과수목[유실수]포함평가]	답	20,098,400 20,098,400	일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동소 432-1 215㎡ 제치외 주택 등 57.1㎡ 동소 432-2 116㎡ [물건번호2:과수목[유실수]포함평가]	대	7,050,000 7,050,000	일괄매각, 매각외 건물위헌법정지상 권설정여지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4타경 4092	1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890-6 295㎡ [토지대 장상지목대]	답	4,425,000 4,425,000	현황전으로이용
	2	동소 889-3 496㎡ [일부전으로이용]	대	7,440,000 7,440,000	제치외매각제외건 물존재
2014타경 4863	1	여수시 화양면 옥곡리 2095-5 1484.4㎡	답	19,297,200 19,297,2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4979	1	광양시 황금동 735-7 1818㎡ [공유차고영입 지분1818분의496전부]	답	29,760,000 29,760,000	공유차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4타경 5316	1	고흥군 금산면 신진리 844 760㎡ [수목[감 나무작3구, 감담초약40주들]포함매각]	전	4,210,000 4,21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18285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04-3 1064㎡	대 음식점	518,760,480 518,760,48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포함
2014타경 1789	1	순천시 별미길 18, 8층 374.9465㎡	근린시설	300,000,000 300,000,000	
2014타경 4757	1	순천시 동외동 209-9 109㎡	대	99,123,040 99,123,040	일괄매각, 목록2:1 층주택및소매점

[기타]

2013타경 15729	7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93-1 174㎡	도로	487,200 487,200	2014타경 10127 [중 복]
2014타경 4719	1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662-1 4267㎡	염전	123,936,000 123,936,000	일괄매각, 현재제 염전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반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물건가액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지의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청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4. 8. 18. [월] 10:00
3. 매각절정기일 : 2014. 8. 25.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법원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밀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위반으로 최고매각가격의 1% [10만원]에 해당하는 금품기부 및 불법의 자금지부 또는 편금 등 위반하거나 기밀보유위반행위를 저질러 본사[입찰 보증서]를 중단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특례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추가입찰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결정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절정기일에 매각허가 서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찰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자의 지참과목서를 작성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증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우체국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합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경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일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매각과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할 지등명등을 받은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민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자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 [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하는 양방을 양도인 수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법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신청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절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명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한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출생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발적인 계서면의 공고나 부원에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제무자가 제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민원공고 → 민형명명보석]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최고매각액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대중을 위하여 미온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계시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정준